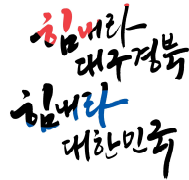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2.(목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 당 자	·과장 나기호, 사무관 장기영 ·☎ (044) 201-3823, 3824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가능합니다.		

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교통지원 대책 관련

-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, 전용 공항버스, KTX(전용칸)로 이동하여야

【 관련 보도내용 (4.2. 조선일보) 】

☐ 의무격리 첫날 ... “입국자 절반, 자가용 탄다며 공항서 사라져”

- “자가용을 이용한다” 는 입국자는 그대로 입국장을 빠져나갔고, 자가용이 없다고 한 입국자는 행선지별로 줄을 서 기다리게 했다.

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를 시행함에 따라, 입국자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시 감염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입국자에 대해 ① 승용차 이용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, ②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(전용칸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공항에서 입국자들은 승용차, 전용 공항버스 및 KTX(전용칸)를 이용하게 되며, 입국자들의 공항철도나 시내버스 이용은 제한되고 있어, 입국자가 공항을 임의로 벗어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.

☐ 앞으로도,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입국자 교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장기영 사무관(☎ 044-201-38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